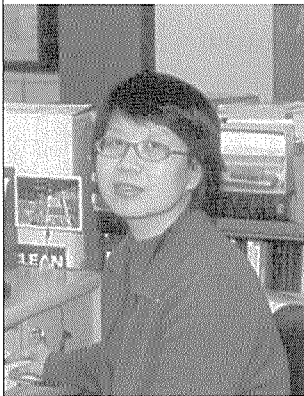


인터뷰 - 김미해 사서(국립중앙도서관 자료조직과)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윤정광)는 지난해 12월 4일 '2002 한국출판평론·학술상' 수상자를 선정·발표하였다. 이번 한국출판학술상은 2001년 9월 이후 발표된 출판학 관련 논문이나 단행본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반갑게도 한국출판학술상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조직과의 김미해 사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김미해 사서는 2002년 2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출판잡지전공 석사졸업논문인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의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를 제출하여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김미해 사서의 수상을 계기로 사서들도 도서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출판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인프라 구축을 굳건히 할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터뷰를 하였다. ■진행 : 심요정



김미해 사서

한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 우선, 한국출판학술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신청하셨는지요? 신청 동기와 신청 방법 등을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출판평론학술상은 출판평론 활성화와 출판연구 진작을 위해 1996년부터 매년 공모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는 학술상부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상에 대해서는 먼저 받으신 분들이 알려주시면서 당선되면 상금도 준다고 하기에 논문을 쓰기전부터 꼭 응모하려고 했습니다(웃음). 대학원 공부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논문을 끝내고나니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또 ISBN/ISSN과 관련한 연구가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을것 같았습니다. 신청방법은 한해동안 나온 출판관련 논문이나 단행본 3부를 10월말까지 한국출판연구소로 보내면 되고 응모자에 대

◆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의 활용도에 대해 연구하시게 된 연구동기를 알고 싶습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남본과 한국문헌번호센터에서 ISBN/ISSN관리업무를 하였습니다. 1998년 말에 <한국문헌번호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용역사업이 시작되어 업무담당자로 연구원들에게 관련자료도 찾아드리고 회의에도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나온 관련 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ISBN 업무는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기도 했고 하다보니 나가야할 방향도 보이고, 그래서 이론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담당자만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안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ISBN이 도서관 업무중의 하나이기 는 하나 실제로는 도서관보다 이를 사용하는 출판사나 서점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일은 재미도 있고 보람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문헌정보학이 아닌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출판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결국 이 논문 한편을 쓰고 싶어 대학원을 다니게 된 것이지요.

◆ 선생님께서 학술상을 수상하신 논문의 내용을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연구내용에서 강조하시고자 했던 내용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ISBN이 시작된 것이 1991년이니까 햇수로 이제 13년이 되었습니다. 가입 출판사수가 지난 해말로 11,000개를 넘어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ISBN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매년 크고 작은 오용사례를 조사하면 오용율이 20% 가까이 나옵니다. 출판유통에 있어서 책의 고유번호인 ISBN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정확한 사용을 위하여 관련업계가 협조해야할 때입니다. 논문에서는 ISBN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특히 제도운영상의 개선과 ISBN 번호 구성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 출판계와 도서관계는 여러 면에서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도서관계나 사서들은 출판정책에 대한 관심이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과 출판계의 협력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서관은 그동안 출판계에 대하여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해 인기를 끈 한 방송국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프로그램이 금년에는 결국 도서관을 짓는 프로젝트로 나가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판계와 도서관이 함께 가야 서로 상승효과를 가집니다. 우선적으로 도서관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서들도 업무영역을 책의 열람 서비스만이 아니라 서평도 하고 전문적인 장서선정으로까지 넓혔으면 합니다. 변화하는 출판환경의 흐름을 인식하고 있어야 문화정책 전반에 걸쳐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향후 추진할 계획이 있는 연구활동이나, 하고싶으신 연구활동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상을 받으면서 계속 공부하고 글을 써야하는 과제가 부상(副賞)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서지발간 업무도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로, 우선은 국립도서관의 서지 발간 업무의 발전 방향에 관한 글을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서관 사서의 입장에서 출판계의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